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iaspora) 이야기

이근무

(성균관대학교)⁺

김진숙

(조선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선택한 국내 남성배우자들의 결혼동기와 배우자와의 관계형성 내용과 과정 그리고 질적인 변화 등을 생애사 연구방법(Biography research method)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구체적 경험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는 국제결혼을 한 10명의 국내 남성 배우자들이 참여했고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결혼동기는 도구적 성격이 강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다 교환가치가 비동등해지자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었고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되기도 했고 유지되기도 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의 문화를 해체한 후 배우자 문화와의 접점에서 이를 재구성했고 그후 새로운 디아스포라적 위치로 자리이동을 했다.

연구의 함의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iaspora)로 보는 관점의 학문적 필요성을 역설했고 제언에서는 문화간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을 제언했다.

주제어: 국제결혼 남성, 생애사 연구, 신디아스포라, 문화간 교육, 다문화 사회

* 이 논문은 2007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Chosun University, 2007).

1. 서론

지구화(Globalization)현상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증유의 변동성을 초래했다. 국민경제 체제는 해체 일로에 들어섰고 물리적 국경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탈영토, 탈국가의 추세와 전자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신유목민을 등장시켰다. 지리학적 상상력(geographical imagination)에 고무된 신유목민들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무장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지리적 이동을 한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에서 35명 중 1명은 국제 이주자에 해당한다(IOM, 2003).

한편 전지구화의 맥락에서 여성들의 국제이주도 급격히 늘어났다. 여성들의 이주, 특히 아시아권 여성들의 경제선진국으로의 이주를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으로 보는 논자들(김현미, 2004; 이해경, 2005; Castle and Miller, 1998; Kofman, 1999)도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부모나 남편 등을 따라 타국으로 이주했던 여성들이 수동적 지위에서 탈피하여 능동적 행위 주체자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지구화 추세와 여성들의 국제이주 증가는 한국의 상황과 조우하여 우리의 결혼문화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혼인시장에서 탈락한 국내남성들의 증가, 그리고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완화 등으로 인해 국제결혼, 특히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1990년 619건에 불과했던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건수는 2007년 현재 38,491건(통계청, 2008))으로 늘어났다. 농어촌의 경우 결혼하는 세 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이고 도시와 농촌을 합치면 여덟 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이다(경향신문, 2007).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들의 관심도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라는 개념이 시대적 코드로 까지 발전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적 국제결혼의 부작용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연구(김은실, 2004; 이수자, 2004; 한국염, 2006)들로 이들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 여성들을 주변인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타자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 점철되어 있다. 둘째, 결혼이민 여성들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들(강유진, 1999; 설동훈·윤홍식, 2005; 한건수, 2006)이다. 셋째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의 갈등과 적응을 다룬 연구(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김연수, 2007; 최금혜, 2005; 김오남, 2006; 윤형숙, 2004; 신란희, 2005)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분야이다. 이들 연구들은 고부갈등, 역할갈등, 자녀양육문제, 언어문제, 문화적 갈등 등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과 관련된 모든 차원을 망라하고 있는데 결혼 이민 여성들을 지렛대로 하여 전개되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속내를 살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포스트 식민주의(postcolonialism)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소통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타자성 등을 다룬 연구들(김이선·김민정, 2006; 김현미, 2004; 김은중, 2005)로 이들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추이속에서 다양한 담론을 촉발시키는데 기여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자들은 결혼이민여성 연구에서 하나의 큰 연결고리가 결여되었음을 발견했다. 국내 연구자들이 소홀히 했거나 잃어버린 고리는 배우자와의 연계성이다. 결혼생활은 양 방향성을 갖는 합동적 행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남성배우자들을 연구에 포섭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에 대한 연구는 장은정(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남성배우자들은 결혼이민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에 엑스트라로 등장하여 가부장적 권위와 봉건주의적 향수에 젖어 여성배우자들을 억압하는 폭군이나 매매혼의 혼주 등으로 묘사될 뿐이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내국인 남성들 역시 급변하는 변화에 중심에 서 있고 그들 역시 성장환경과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른 이국출신의 배우자와 적응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아직도 순수혈통, 단일민족 같은 신화가 작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선택과 결단 역시 여성배우자들 못지않은 갈등과 긴장을 내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들은 국제결혼을 선택한 내국인 남성들의 결혼동기, 배우자와의 관계형성 내용과 과정 그리고 질적인 변화 등을 그들의 생애와 사회구조와의 맥락에 위치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환경과 개인의 선택적 행위의 발현 영역에서 문제를 보고자 하기에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국제결혼을 선택한 남성들의 구체적 경험세계와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독해하여 국제결혼 부부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국제 결혼부부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 구성에도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결혼 부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혼이민여성과 같은 소수집단과 이민지의 남성배우자로 대변되는 주류집단과의 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살피고자 하는 연구는 서구 연구자들에 의해 선도되었다. 서구의 초기 연구들은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질서를 이민자들을 통해 재현하려고 했다(Roccas, Horenczyk, and Schwartz, 2000). 그 결과 주류 사회에로의 동화정도로 적응을 평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Baltas와 Steptoe (2000)는 영국인과 결혼한 터키 출신 여성들은 이민지의 문화, 영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와 갈등을 일으켜 적응곤란을 비롯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고 문화통합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Patterson (2004)은 카리브해 연안국가 출신 결혼이민 여성들은 미국남성의 기존문화와 갈등을 빚어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짓기도 했다. 이러한 동화주의관점은 Ataca와 Berry(2002)에 의해 일종의 격률(格律)로 굳어지기도 했다. 그들은 미국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주류문화와 자주 접촉하고 주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한편 자기의 땅에 들어온 이주민들과 나와의 관계를 부등호를 쳐서 구별하려는 동화(assimilation)

관점에 대한 반동으로 1980년대부터 문화접변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문화접변 패러다임은 결혼이민여성들과 같은 소수집단의 적응을 주류문화에로의 동화가 아닌 자기성의 보존과 상호수용으로 이해하려고 한다(Berry, 1997; Phinney, 1990). 따라서 적응을 다차원적인 통합과 가치체계의 선택적 수용이라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문화접변 관점을 지닌 일군의 연구자들은 문화접변의 유형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분류하고(Liber, Chin, Nihira and Mink, 2001; Berry, Kim, Power, Young and Bujaki, 1989) 유형별 적응정도를 보았는데 경험연구에 의하면 동화유형이 자존감, 자아개념, 주관적 행복감과 적응에 있어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보고했다(Phinney, 1990; Ward and Rana-Deuba, 1999).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구 연구자들은 소수집단의 적응을 동화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문화접변의 패러다임으로 모든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을 이분법적 구도로 구획하고 그 차이를 드러내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응문제에 있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실천적 관심을 경주한 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연구자들이 갈등을 보는 주된 관점은 문화충돌로 생각된다. 즉,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문화와 질서에 결혼이민 여성들을 강제로 편입시키려는 남성배우자와 확대가족에 대항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이 벌이는 일종의 문화전쟁이다.

강유진(1999)은 결혼이민 여성들은 남성배우자들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고와 습관을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심리·사회적인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갈등은 또한 주류문화 담지자들의 밀어내기에 의해서도 생성되고 강화된다. 윤영주(2001)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도전하기 위해 제(譜)차원의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행하지만 남성배우자와 시부모 등의 불신과 수용거부로 인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다고 했다. 좌절의 경험은 이민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기정체성 주조에 기여한다. 그리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은 주변인의 위치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김오남, 2006).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국내·외 연구축적물에서 문제를 찾아 이를 적시하면 결혼이민 여성들의 다면적 삶과 동기에 대한 관심의 소홀과 갈등의 순기능과 상호작용 측면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Piper와 Roces(2003)가 지적하였듯이 연구자들은 주체적 경계넘기를 한 결혼이민여성들의 다면적 삶과 동기 그리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생애경험을 도외시하고 아내, 노동자, 며느리같은 단일한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결혼이민여성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들의 선진국 남성들과의 결혼동기를 경제적 목적에서만 파악하는 연구들(Woelz-Stirling, Manderson, Kelaher and Gordon, 2000; Smith and Kaminskis, 1992)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그려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주된 결혼동기가 경제적 신분상승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민 집꾸러미속에는 고유의 문화와 전통, 의례, 가치관 등이 담겨져 있고 이러한 구성물들은 이민지의 문화와 만나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이민지의 문화를 변형시킨다. 때문에 결혼이민여성들이 본국의 문화체계와 연계된 상태에서 이주민의 문화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변용하는가 등에 관해 동태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아시아권의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정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시아권의 결혼이민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국가, 탈영토적인 관점에서 주로 미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문화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방법론 역시 생애사, 문화기술지 같은 질적연구를 수용하여 동태성과 변용을 포착하려고 한다(Leung, 2007; Ogaya, 2004; Esau, 2007). 아시아권 연구자들은 결혼이민과 같은 이주에서 당사자들의 적응은 이주지 문화에로의 동화나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성공적 적응이라는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본국에서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성별, 연령 등을 막론하고 이주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갈등이나 충돌은 변용의 통과례이다. 통과례를 통한 성찰적 회고나 반성없이 이루어진 타자의 수용과 공존의 터뒀기는 어찌보면 이민자에게는 형식적인 편주의요 이민지의 주류집단에게는 문화전쟁에서의 무혈정복이다. 이런 구도하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위장된 관용이고 또다른 하위인종을 생산해 내는 억압의 기제일 뿐이다. 마땅히 갈등의 순기능과 상호작용 측면 그리고 그것의 발현과정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 대다수는 결혼이민여성들을 고정축으로 하여 부정적 측면에만 주목했다.

국제결혼부부의 갈등을 다룬 국·내외 연구들은 그 수를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이를 인과적 틀에 맞추어 단선적으로 정리하면 부부간 또는 확대가족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Bhugra, 2004; 윤형숙, 2004; 강유진, 1999)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신체, 정서적 폭력과 무시와 같은 학대로 표출된다(Abraham, 2000; Menjivar and Salcido, 2002; Madiguid, 2005; 최금해, 2005; 김상임, 2004). 결과는 결혼만족도의 저하나 이혼과 같은(Szuki, 2004; Fincham, 2003; Del Rio, 1998;) 위기로 이어진다고 보고있다.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지지(Proulx, Helms and Payne, 2004; Tummla-Narra, 2004; Killian, 2001; 양선화, 2004; 한건수, 2006; 이금연, 2003)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갈등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켰고 더욱이 갈등으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결혼이민여성들의 몫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마땅히 갈등의 순기능과 상호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탐구는 과정의 동태성에 의지해야만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외국출신과 결혼한 총 10명의 남성이 참여했다. 연구자들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속성과 개별생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동시에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10명이 적정수라고

판단했다. 연구참여자는 의도적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사용했다. 의도적표집이란 연구자가 관련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나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것이다(Schwandt, 2001). 연구자들은 국제결혼을 선택한 남성들의 동기, 문화갈등, 부부간의 상호작용등을 살펴보고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을 것, 부부갈등을 경험하고 이를 변용시킨 경험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사례선정을 위해 가정사역을 하는 기독교 종교인 M, K도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회복지사 A, 결혼 이민 여성지원센터의 소장 G, 필리핀여성 공동체모임의 회원 P, 다문화가정 가정모임의 회장의 소개를 받아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지역적 편중성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도시와 농촌의 특유한 문화적 배경이 공존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생애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결집된 곳이라 사회구조와의 맥락에서 발현한 다양한 변이를 포착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2) 자료수집

자료는 심층면담(depth interview)을 통해 수집했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자료를 수집했다. 심층면담은 1인당 평균 6회가 소요되었고 1회당 평균 110분이 소요되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생애사 분석방법으로 했다. 생애사 분석은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Lieblich, Tuval-Mashiach와 Zilber(1998)가 제시한 접근방법 중 하나인 범주적 내용분석(categorical content approach)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다수의 생애사 자료에서 공통의 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여러 명의 생애사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다. 물론 개별 생애사 전체를 조감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개별생애 프로필을 요약하여 적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사 요약¹⁾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1은 K도 P군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 구로공단 인근의 프레스 공장에 취업했다. 15년을 한 공장에서 일했고 종업원 9명의 작은 공장이었지만 공장장으로까지 승진했다. 30세에 서울 근교의 공업지대로 이주하여 프레스 가공 공장을 차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 1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하지만 마흔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졸업학력도 문제가 되었지만 왜소한 체구와 신체장애가 번번이 걸림돌이 되었다. 그는 주물 작업 중 오른쪽 눈을 실명했고 프레스 기계에 손을 다쳐 왼손 중지와 검지의 반이 절단되었다.

나이 마흔 둘에 국제결혼 중매회사를 통해 베트남 여성((결혼당시 26세)과 결혼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슬하에 세 살 난 딸을 두고 있다.

(2)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2는 2008년 1월 현재 마흔여섯 살로 K도 Y군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후 동리의 목장에 취업, 소위 “목부(牧夫)”로서의 인생을 시작했다. 스물여덟에 읍내 다방의 “레지”(다방 여종업원)와 결혼했다.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아내는 가출과 외박을 밥 먹듯이 했고 집안에서는 “소똥 냄새가 난다”며 곁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 참여자가 서른두 살이었던 해에 아내는 노름 빚 300만원을 참여자에게 떠안긴 채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참여자 나이 서른다섯에 “인생 대박”이 났다. 참여자는 당시 2000평 정도의 목장 부지를 지니고 있었는데 Y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개발 바람이 불었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참여자는 목장 부지를 아파트 건설 회사에 3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그 후 서른아홉이 되던 해 결혼 중매회사를 통해 당시 23세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과 결혼을 했다. 2008년 현재 슬하에 자녀는 없다.

(3) 연구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3은 2008년 1월 현재 마흔세 살로 J도 H군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 인삼재배 기술자인 아버지를 따라 K도 D읍으로 이주했다.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농협 임시 출납직으로 일하다가 해병대에 하사관으로 입대, 7년을 U. D. T. (Under Water Demolition Team : 해군 수중 폭파대) 요원으로 근무한 후 전역했다. 전역 후 스킨스쿠버 스쿨을 운영하다 도산, 서른한 살 때부터 영업용 택

1) 생애사 요약과 해석에서 양 따옴표로 표시한 문장이나 어휘는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서른다섯이 되던 해 국내 기독교 선교 단체의 주선으로 필리핀 여성(당시 28세)과 교제를 했고 서른여섯이 되던 해 필리핀 세부(Sebu)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08년 현재 가족은 아내와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아내는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어전문 학원의 영어강사로 일하다가 무단가출, 현재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다.

(4)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4는 현재 마흔 아홉으로 C도 C시에서 태어났다. 참여자는 고등학교 시절 야구선수로 활동했으나 집단 편싸움에 연루되어 퇴학을 당했다. 상해 혐의로 두 번, 마약법 위반으로 세 번의 실형을 선고 받아 도합 6년의 교도소 생활을 했다.

필로폰 중독자였던 참여자는 마약 딜러로 자신의 약값과 생활비를 충당하는 생활을 하다 카드 값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중국에 있는 한인 교포 여성과의 위장 결혼이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교포 여성은 브로커를 통해 500만원을 참여자에게 지불했다.

참여자는 500만원을 밑천으로 노점 장사를 했다. 위장 결혼 한지 2년 후 교포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애초의 약정대로 이혼하지 않고 2008년 1월 현재까지 혼인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도합 8년의 결혼 기간 중 그들이 실제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6년 6개월이다. 현재 슬하에 자녀는 없고 중국에 아내 소생의 딸 한명이 있다.

(5)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5는 2008년 현재 서른여덟로 K도 K면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한국 전쟁 직후 유엔군으로 파병된 터키군이 주둔하기도 했던 군사 지역이다. 그의 아버지는 소위 “머구리”(무면허 치과 의료인)로 생계를 유지했고, 할아버지 역시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게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생활했던 무자격 의료인이었다.

군 체대 후 참여자는 별다른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뚜렷한 목적도 없이 터키로 갔다. 터키에는 작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는 터키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 때 터키군 막사의 “하우스 보이”로 있다가 터키군 장교의 눈에 들어 그의 양아들이 되어 터키로 갔었다. 그는 양아버지의 후원을 받아 터키 이스탄불에서 규모가 큰 의류 도매상을 하고 있었다.

작은 아버지 매장에서 일하던 참여자는 터키 여성과 결혼, 한국으로 귀국했고, 현재는 수도권의 모처에서 터키의 전통음식인 케밥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 후 부인이 따로 식당을 운영하다 자산을 정리하여 터키로 돌아갔다. 배우자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혼 수속을 밟고 있다.

(6)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6은 2008년 1월 현재 마흔 여섯으로 K도의 궁벽한 산촌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다. 중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참여자가 서른다섯이 되기까지 중매 한번 들어오지

않았다. “총각으로 늙어 죽을 수는 없어 무진 애”를 썼으나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인생 목적은 결혼이었다. 동남아 출신 여성들과의 국제결혼도 생각했으나 웬지 꺼림직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T교에의 입문이었다. T교는 국제결혼이 많은데 한국을 T교 교주의 나라라고 해서 선호한다는 말을 들었다. 무작정 입교한 그는 5년 후 고학력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한 후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2008년 현재 5년차 부부로 슬하에 아들이 하나 있다.

(7) 연구 참여자 7

연구 참여자 7은 2008년 1월 현재 서른다섯 살의 건설 노동자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콘크리트 타설 일을 배운 후 스물네 살 때부터 기공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하루 임금은 평균 12만원선. 일년에 장마철과 겨울철, 그리고 “데마찌”(일이 없어 쉬는 날)를 제외하고 평균 200일 정도 일을 한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의 평균이다. 주위에서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서울 근교의 H시에 1억이 조금 넘는 다세대 주택도 마련했다. 하지만 직업이 불안정 하여 선뜻 중매를 서는 사람도 없고 직업의 특성상 여성들을 만날 기회도 희박하다. 남성의 원초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안마시술소를 종종 찾았고 그곳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몽골 출신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다. 2008년 현재 6년차 부부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8) 연구 참여자 8

연구 참여자 8은 S시에서 태어나 현재도 S시 K구에 살고 있다. 2008년 현재 서른일곱 살이다. 참여자는 대학을 졸업한 후 무역회사를 차렸다. 명색이 무역회사지 4평 사무실에 여상을 졸업한 경리 여직원 한 명과 자신이 회사 구성원의 전부였다. 국내의 덩핑 시장에서 의류와 악세사리 등을 구입해 중국, 러시아 등에 파는 보따리 무역 수준이었다. 그러다 필리핀 수빅만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하고 대대적인 관광 개발 사업이 시행된다는 풍문을 듣고 필리핀에 진출했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광 가이드를 했고 때로는 불법 카지노 모집책으로도 일하면서 필리핀에 뿌리를 내리려 했고 마침내 법과대학을 졸업한 변호사 여성과 결혼을 해 정착에 성공했다. 3년전 다시 귀국, 어학연수를 주 사업으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에도 사업체가 있다. 2008년 현재 5년차 부부로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9) 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 9는 2008년 1월 현재 마흔세살로 고등학교 졸업 후 부친이 경영하던 소규모 철공소에 일을 시작했고 스물여덟 살에 철공소를 물려받았다. 수도권 위성도시의 공장 밀집 지대에서 소규모 기계제작 등으로 기반을 잡았으나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 IMF때 원정기업이 도산하자 참여자도 5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도산했다. 그 후 가산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도피성이주를 했다. 중국에서 조악한 공산품 등을 구매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일을 했고 북경에서 발 마사지사로 일하던 한족 중국여성과 결혼을 했다. 중국에서 5년을 지낸 뒤 귀국, 2008년 현재 중국어 학원을 하고 있다. 슬하에 1남이 있으며 9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10) 연구 참여자 10

연구 참여자 10은 S시의 대표적인 달동네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공군에 자원입대 했고 전역 후 국내 유일의 항공회사에 취직을 했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였고 결국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여 퇴사 당했다.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아내와는 이혼을 했다. 그 후 가내수공업이나 다름없는 하청공장을 차렸다. 주택가 차고를 개조한 공장에서 양초 같은 팬시용품을 만들어 납품을 했다.

연구 참여자는 미모의 러시아 출신 여성과 재혼을 했는데 그녀는 당시 참여자의 하청공장 노동자였다. 2008년 1월 현재 전 처와의 소생인 2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현재의 배우자와는 7년 전 결혼을 했으나 결혼한 지 4년 후 러시아 출신 배우자는 한국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과 같이 러시아로 돌아갔다.

2)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부부관계의 질적인 전이의 내용과 과정

(1) 도구로서의 결혼

연구 참여자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제차원(諸次元)의 상황과 깊이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를 범박함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도구적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7의 경우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손장난(자위)을 할 수는 없었다. 솔직히 결혼이 뭐 별건가. 얼굴도 괜찮고 까짓것 한 번 갈 때마다 10만원인데 그런 심정으로 질러버렸다."는 진솔처럼 배우자는 단순한 섹스 파트너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혼과 배우자를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은 연구 참여자 대부분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4의 경우 돈을 벌기위해 위장 결혼을 했고, 연구 참여자 6은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 거짓 신앙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 3과 8은 영어를 상용하면서도 물가가 싸고 한국인이 대접 받는 필리핀에 사업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리핀 여성을 선택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아래와 같은 구술 요약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중국이 먹여 살릴 것이라고 하는데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도 고려했다. 이들에게서도 당연히 중국어에 익숙할 것이고 경쟁력이 될 것 같다. 처가 쪽 사람들이 있으니 중국에 진출하기도 수월할 것 같다." (연구 참여자 9)

"결혼 하려고 할 때 베트남 여자는 살도 찌지 않고 남편을 하늘같이 여긴다고 하길래 마음이 끌렸다. 또 베트남이 발전할 것 같은데 여러모로 생각했다." (연구 참여자 1)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여자라도 예뻐야지 남들이 뭐라고 하건... 일단 데리고 나가면 폼 난다." (연구 참여자 2)

“미누라는 러시아 왕비를 많이 냈던 백계 러시아인이다. 미누라 팔아먹는 것은 아니지만 예쁘니까 매우 유리할 것 같았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했다.”(연구 참여자 1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국제결혼 동기는 다분히 도구적 성격이 강했다. 그렇다면 다음 과제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예인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여성(배우자)과 가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생성과정과 사회적 영향을 분석했다.

“친척 아저씨가 베트남 전쟁에 갔다 왔는데 술에 취하면 베트남 얘기를 했다. 하얀 아오자이와 걸을 때 마다 드러나는 날씬한 다리 같은 것들...(이하 중략) 우리나라에서는 멸시 받지만 거기에서는 가오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1)

“소련은 최강대국으로 무시무시한 나라였는데... 소련여자가 내 공장에 일을 하러 왔다. 기가 막혔다. (이하 중략) 달동네에 고졸 학력에 회사에서도 무시당해 다단계로 어떻게 한 번 할려고 했는데... 말도 안 통했지만 강대국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뭐랄까 복수랄까 엄청나게 짜릿하고 흥분이 됐다.” (연구 참여자 10)

“필리핀에는 우리나라 공인 중개사 만큼이나 변호사가 많다. 법대만 나오면 개나 걸이나 다 변호사다. 그래도 변호사니까 인감생심 지방 똥통 대학 나온 내가 꿈도 꾸지 못할 여자지...변호사를 깔고 앉은 기분은 필리핀을 정복한 기분이었다.” (연구 참여자 8)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배우자는 ‘생의 반려자’이기에 앞서 자신의 억눌린 욕망과 지배욕을 실현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엿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2는 개발광풍에 힘입어 일약 부자가 되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낮은 학력과 목부출신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당했다.

“소 똥 줄부”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고자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타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자신을 “왕처럼 받아들여줄 외국여자”를 찾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결혼은 전쟁에서의 승리요, 연구 참여자 3의 진술처럼 “전리품”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 전 생애사 자료를 분석하면 ‘권력에의 배제’와 ‘소통 통로의 부재’ 라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제들이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위와 같은 변형된 인식을 생성, 유지 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군대는 짬밥인데 거지같은 장교 XX들한테 깨지고 나도 사관학교나 ROTC 갔었으면 지들보다 못하게 없는데...” (연구 참여자 3)

“사람이 빙충이 같으니까 주먹으로도 출세하지 못하고 조직에서도 꼬봉이었고, 교도소에서도 잘 나가지 못한 개털에다 사회에서는 더 그렇고, 여자는 국적 얻을 때까지 2년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

으니까...”(연구 참여자 4)

“사회에서는 노가다 패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데 노가다 판에서도 우리 공구리(콘크리트) 패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도 마누라한테는 내가 최고다. 칭기즈 칸이 우리나라까지 지배했다는 데 그 칭기즈칸의 딸을 나는 중처럼 부렸다.”(연구 참여자 7)

“땅 값이 올라 돈을 만졌지만 이상했다. 티내기 싫어서 절약해 살면 구두쇠, 짠돌이 라고 그리고 좀 쓰면 주제를 모르고 허세 부린다고 하고...땅 값 올라 부자 된 게 내 죄는 아닌데...”(연구 참여자 2)

“공군 출신이라 항공회사에 쉽게 취직을 했는데...직급도 별 볼일 없는데 대학 나온 직원들은 나를 우습게보고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늘 대학 나온 애들한테 밀렸다.”(연구 참여자 10)

“사업을 한 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다. 지방 대학이라고 원서도 안 받아주니까 오기가 났다. 나도 월급 주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보따리 무역 할 때고 필리핀에 있을 때도 온통 뜯어먹는 놈 밖에 없다. 힘이 없으니까...”(연구 참여자 8)

위의 구술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 1은 “공돌이”라는 비하와 장애로 인해 철저히 배제 당하는 삶을 경험했고 연구 참여자 5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아버지가 피검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자랐다. 아버지가 체포됐을 때 마다 어머니는 “뺨 과 줄”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6이 기억하는 새마을 운동은 “사람 잡는 운동”이었다. 총력 동원 체제에서 참여자의 부모, 친척들은 연일 마을길 넓히기와 산림 녹화사업에 동원 되었지만 소위 “완장”을 찬 사람들은 무상 지급되는 시멘트와 벽돌 등을 빼돌려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 연구 참여자는 당시 “새마을 지도자와 대통령을 동급으로 알았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9의 성장기와 청년기 역시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당하는 압제와 억압으로 질게 채색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 9는 초·중·고교시절 성적이 우수했다. 체격조건 또한 좋았다. 그는 육사에 진학하고 싶었다. 필기시험, 체력시험을 모두 통과했지만 최종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 참여자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와 직계 친족 일부가 좌익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군인들이 득세하던 시절에 군인이 되어 영화의 끝자락이라도 매달리고 싶었지만 “뺨갱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망치 잡이 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세상과의 소통을 원했고 또 제도적, 사적 권력을 불문하고 권력이 작동하는 대상이었다. 권력의 작동이 강화되면 될 수록 그들은 더욱 권력을 갈망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 중 하나는 희소성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는 권력자들의 리그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단계 사업’(연구 참여자 10), ‘마약장사’(연구 참여자 4), ‘스킨스쿠버 사업’(연구 참여자 3), ‘완력사용’(연구 참여자 7), ‘대륙진출’(연구 참여자 9), ‘무역업’(연구 참여자 8), ‘약대 진학을 위한 4수’(연구 참여자 5), ‘농촌 청년운동’(연구 참여자 6) 등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지만 권력의 문은 금단의 문이었다.

좌절한 연구 참여자(3, 4, 5, 6, 7, 8, 9, 10)들은 “뽕 대신 닭”(연구 참여자 9)이라는 구술이 시사하듯이 자신들의 권력이 머무를 영역을 찾았고, 이는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현되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 1, 2는 세상과의 소통의 문이 닫혀 있었다. 자수성가한 연구 참여자 1은 경로잔치도 열고 지역사회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지역사회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다. “방구 꽤나 귀는 놈들은 학력에다 외모, 장애 같은 거 때문에 나를 끼워주지 않고 없는 놈들은 병신이 꼴갑한다 그러고”라는 구술처럼 참여자는 낮은 이방인이자 경계에 서 있었다. 연구 참여자 2 역시 자신의 행운에 겸손해 하며 소통을 원했지만 “소 똥 냄새 풍기는 목부”로 밖에 알아주지 않았다. 소통의 문이 열리지 않자 연구 참여자들은 부정의 부정이라는 역설적 소통 통로를 탐색했다.

“몰골이 추하고 병신이라고 하니까”(연구 참여자 1),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연구 참여자 2) 예쁘고 젊은 여자를 찾았고 내국인들 중에서는 찾기가 힘들어 “돈으로 살 수 있는 외국여자”(연구 참여자 2)를 찾았다.

물론 위와 같은 우울한 생애의 초상은 동 세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회구성원들도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권력지향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유독 연구 참여자들이 배우자를 권력의 지배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개인의 내적 성향보다는 우리사회 곳곳에 침습해 있는 정상성의 신화가 더 큰 역할을 했다. 결혼은 개인의 사회적 선택 행위이자 자유로운 양 개인의 민사계약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양성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남성의 경우 더 가혹하게 적용된다.

“맹장수술 할려고 하는데 보호자를 데려오래. 나이 마흔에 내 사업체도 있는데 결혼 안했다고 하니까 입원비 떼어 먹고 도망갈 놈으로 취급을 했다.”(연구 참여자 1)

“경제력 있고 결혼 안한 여자는 골드 미스라고도 부르는데 남자가 나이 들어 결혼을 안 하면 고자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성질이 괴팍한 사람으로 매도를 한다. 사업 파트너로도 신용을 안 한다.”(연구 참여자 9)

“사업 맡아 먹고 경비원이라도 취직을 할려고 했는데 호적등본에 미누라가 없으니까 번번이 퇴짜다.”(연구 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정상성이란 한 개인을 공동체로 포섭하는 수용 기제라기보다는 편 가르기 또는 밀어내기의 기제라 할 수 있다. 결국 밀려난 연구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의 언저리에 또는 사회 내에서 자기들만의 서클을 구성하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전략을 선택하고 의 미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고 각기 다른 삶을 살았지만 유배된 변방에서 부정의 부정과 권력자의 위치에 서기라는 공모를 했다.

(2)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동업자

전 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배우자는 권력의 작동점 내지 부정의 부정 객체였다. 하지만 이 관계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연구 참여자들과 그들의 배우자 사이에는 동업자 관계가 형성된다. 이 동업자 관계는 초기에는 예속적 동업자 관계였다.

“주민등록증 받으려면 혼인신고 하고도 2년이 있어야 되니까 고분고분했지...그때 내가 치료 보호 선고를 받고 병원(폐쇄된 정신병동)에 있었는데 마누라가 내 수발을 다했다.” (연구 참여자 4)

“택시기사 벌이로 살기 어려운데 000가 영어학원에서 짬짬한 수입을 올리니까 부모님도 좋아했고 그래도 우리 실정에 어둡고 하니까 나 하라는 대로 했다. 직장인 상대로 하는 학원에서 섭외도 왔는데 000도 아이들은 힘들다며 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끌리니까 또 남자들도 있고 하니까 못 가게 했다.”(연구 참여자 3)

“마누라 없으면 터키식당 못한다. 주방장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마누라가 카운터에 앉아있으니까 터키 사람들이 많이 왔다. 솔직히 90%가 마누라 덕이지만 가게 명기도 내 앞으로 되어있고 돈도 다 내가 관리했다.”(연구 참여자 5)

위의 연구 참여자 (4, 3, 5)들은 배우자가 지닌 인적자본과 문화자본을 이용하여 재정 상황을 개선시켰다. 이에 비해 다른 연구 참여자들(1, 2, 6, 7, 8, 9, 10)은 배우자로 인한 사회적 평판의 제고(1, 2), 뇌졸중 후유증을 앓는 모의 수발(7), 필리핀 현지 사업의 명의자(8), 중국어 학원 창업(9), 사업 접대상의 이익(10) 등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연구 참여자 6의 경우 T교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정당의 고위직에 오르기도 했고 이는 T교 신자인 부인의 인맥 덕분이었다. 동업자 관계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화충돌이나 갈등문제는 많이 표출되지 않았고 표출되는 경우에도 그 파급 효과는 미미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연구 참여자의 구술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말은 커녕 부모님 집에 갔는데 어머니 친구 분이 오셔도 차 대접도 안 해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엄마 친구는 엄마가, 남편 친구는 남편이 다 각자 알아서 한대요. 어머니야 칭찬벽력이겠지만 돈 벌어다주니까 접어두는 거지.”(연구 참여자 3)

초기에는 예속적 동업자 관계였지만 이 관계는 곧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된다. 여기에는 배우자들의 동맹결성과, 사회적 압력이 가세했다. “말랑말랑 했던”(연구 참여자 5) 아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반기를 들었다. 자신의 지분을 요구(연구 참여자 9)했고, 어머니의 수발을 접고 대학에 가겠다(연구 참여자 7)고 하는가 하면 자신의 월급을 필리핀 부모에게 송금(연구 참여자 3)하는 등 “개인플레이”(연구 참여자 4)를 시작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아내들은 이주 여성 지원센터나 복지기관과는 별반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무친한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의 뒤에는 아내들의 동맹

군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배우자들은 국내에 있는 모국인들과 접촉을 유지했고 모국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하면서 한국사회에 안착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니 뭐니 하는데 확 깨는 느낌이었다.”(연구 참여자 5)는 진술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왕국이 흔들리는 것”(연구 참여자 9)을 감지했다. 사회적 압력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선택을 강요했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착취, 폭력 등이 이슈화 되자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그 전에는 부인이 미인이니 어찌고 하더니 마스크에서 떠드니까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 술자리에서 반 농담으로 얼마주고 사 왔느냐고 묻기도 했다.”(연구 참여자 1)

“가게에 오는 터키 손님이나 한국 손님이나 마누라를 측은하게 보고 나를 악덕 기업주처럼...늘 시선이 따라왔다.”(연구 참여자 5)

“마누라를 때린 적도 있는데 괜히 움츠러 들었다. 필리핀에는 킬러들이 많은데 5천불이면 특A급을 구한다. 이러다 킬러들이 오는 게 아닌가...필리핀 대사관에서 조사하러 올 것 같기도 했고”(연구 참여자 8)

배우자들의 저항과 사회적 압력에 포위된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에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지배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율배반적인 이 문제는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세련된 형태의 동업자 관계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배우자가 그들의 모국과 철저히 단절되기를 원했다. 친정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음은 물론 “TV에서 필리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거나 부산을 떨어 시청을 방해”(연구 참여자 3)하기도 했고, 연관된 모든 기억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세련된 형태의 동업자 관계로 전환한 뒤에는 “친정 방문을 허락”(연구 참여자 2, 5, 7, 8) 하는가 하면 “동반 방문”(연구 참여자 1, 4, 9)을 하기도 했고, “처가 쪽 식구들을 초청”(연구 참여자 3, 6, 10)하기도 했다.

처가 쪽과의 연결고리 잇기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발달욕구에 조응했다. 연구 참여자 1은 배우자를 국내대학에 진학케 했고, 이외에도 헬스클럽 회원권(연구 참여자 2)을 구입해 주기도 했고, 필리핀 이주여성 공동체의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연구 참여자 8)하는가 하면, 외국인 머느리들로 구성된 운동 팀(연구 참여자 6)활동을 지원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물질적, 정신적 지지 급부를 제공하는 동시에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이 반대급부는 연구 참여자들의 지배력이 견재하고 있음의 관계적 표현이었다. 성관계시 남성이 요구하는 체위나 행위를 거부감 없이 응했고(연구 참여자 6), 외출 시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연구 참여자 9), 시어머니의 친구들을 응대하는 행위(연구 참여자 3), 머리 스타일을 남성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행위(연구 참여자 2)등으로 표현되었다.

(3) 갈등과 긴장

동업은 인간적인 신뢰보다는 상호 교환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제공할 자원이 고갈되거나, 상호 교환의 질과 내용이 비 동등해질 경우 동업자 관계는 파국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예측적 동업자 관계에서 세련된 형태의 동업자 관계로 질적인 전이를 했지만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불균형을 이루자 파탄의 위기를 맞는다.

연구 참여자 5의 경우 터키 출신 배우자는 한국의 요식업시장 구조와 생리를 체득한 후 “요리사의 공급”이 식당운영의 관건임을 알게 된 후 프랜차이즈점 개설을 명목으로 독립하여 케밥 전문점을 연 뒤 연구 참여자와 갈등을 빚었다. 참여자의 사업장은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터키 출신 배우자의 사업장은 호황을 누렸다. 부부간의 갈등은 고조되었고 급기야 아내는 한국과 남편을 멀리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과거 동방과 서방을 점령한 셀주크투르크 족의 용맹함과 영화를 내세우며 터키 남성의 성적인 능력과 연구 참여자를 비교하는 “테러”까지 자행했다.

연구 참여자 3의 경우 필리핀 출신 배우자는 영어 강사로 지역사회 학원가의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필리핀 출신이지만 스페인, 미국계의 피가 섞여있어 서양 여성과 같은 외모를 지니고 있었고 발음 역시 아이리쉬 였기에 높은 인기를 끌었다. 남편의 수입을 훨씬 상회하자 매사에 불평을 했고, 특히 시댁과의 갈등이 심했다.

연구 참여자 10의 배우자는 늘 남편의 사업접대에 동석했었다. 거래처 관계자들은 “속살이 비칠 정도의 하얀 피부와 미모에 매료되어” 사업 이야기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다. 초기에는 많은 덕을 보았지만 연구 참여자의 아내는 점차 “졸데기 같은 하청공장”에 싫증을 냈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명품으로만 치장을 하고 다녔다.

연구 참여자(5, 3, 10)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혼인생활에 중지부를 찍었다. 연구 참여자 3의 배우자는 가출하여 몸을 숨겼고, 연구 참여자 5의 배우자는 사업을 정리하여 터키로 귀환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10의 배우자는 연구 참여자와 친구처럼 지냈던 동네의 부동산 업자와 같이 러시아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부동산 업자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 (1, 2, 4, 6, 7, 8, 9) 역시 동업자 관계가 흔들렸다. 연구 참여자 1의 경우 사업이 도산 위기를 겪었고 성기능이 약화되어 젊은 아내를 만족 시킬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 2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내는 거의 노골적으로 혼외정사를 했다. 연구 참여자 4는 결혼 생활 중 필로폰에 다시 손을 대어 1년을 복역했다.

연구 참여자 6은 배우자와의 학력 격차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열등감은 잦은 폭력으로 나타났다. 그의 배우자는 일본에서 간호대학을 나왔다. 연구 참여자 7의 배우자는 중국 마사지숍을 개업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참여자의 한 달 수입이 배우자의 주말 하루 매출액에 미달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 8 역시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사업은 개점 휴업상태에 빠졌고 배우자 명의로 된 필리핀 상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9 역시 학원 임대보증

금 까지 저당 잡혀 가면서 중국 펀드에 투자했다가 파산했다. 지금은 배우자의 중국어 강사료에 의존하고 있다.

위의 연구 참여자들은 (1, 2, 4, 6, 7, 8, 9) 다른 연구 참여자들(5, 3, 10)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기를 겪었지만 “월만”(연구 참여자 4)하거나, “테면테면하지만 그래도 믿고 사는”(연구 참여자 8)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자기의 재발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연구 참여자들(5, 3, 10)은 동업자로서의 결속력이 느슨해졌을 때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려고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 U. D. T 출신인데...(이하 중략) 지가 날고 기어 봤자 뽀노(필리핀인에 대한 비칭)인데 누르면 될 줄 알았다.(이하 중략) 지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지.” (연구 참여자 3)

“한국 실정을 안다고 해도 외국인이라...눈 뜬 소경이지 그럴수록 더 세계 나갔고 때리기도 했고 공포분위기로 꼼짝 못하게 할려고 했다.”(연구 참여자 5)

“어깃장을 늘 때마다 겁주는 게 일이였다. 은혜도 모른다. 너희나라 가봤자 할 것도 없다, 한국에서 는 모든 게 남자 마음대로다.”(연구 참여자 10)

이에 비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1, 2, 4, 6, 7, 8, 9)은 동업자 관계가 난국에 봉착했을 때 또 다른 질적인 전이를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과정별로 재구성 하면 ‘소수자의 연대의식 → 자기문화의 해체 → 타 문화와의 접점에서 재구성 → 디아스포라 위치에 서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1, 2, 4, 6, 7, 8, 9)은 배우자와의 교환관계에서 열등한 위치에 처하자 자신을 무장시켰던 허위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따지고 보면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지만...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떠나면 이국땅에 온 그 사람도 그렇고, 국민 학교를 졸업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서울에 올라와 망치로 머리통 맞아가며 눈물 젖은 밥 먹던 나나 다를 게 없다. 서러운 인생끼리는 통 하는 게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가슴이 시원해지도록 서로 울었다.”(연구 참여자 1)

“OOOO가 외박하고 들어 올 때는 그냥 울었다. 왜 우냐고 묻길래 떠들떠들 내 서러운 인생 이야기를 했다. OOOO는 깜짝 놀랐다. 줄지에 땅 값 올라 돈푼꺼나 만지는 줄을 몰라서 내가 계속 부자로만

산출 알았던 것 같다. 자기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알콜중독자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배고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따지고 보면 서로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연구 참여자 2)

“얼치기 건달에다 약쟁이인 내가 뭐 내세울게 있나. 어린새끼 떼어놓고 돈 벌러 온 집사람이나, 결혼해주고 돈 받은 나나, 남들이 볼 때는 하류인생이지... 솔직히 툭 까놓고 너나 나나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묘하게 서로 통하지.”(연구 참여자 4)

“그 사람도 일본에서는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본은 신도인가 뭔가를 믿는데 그 사람만 OO교이니까 제사도 안지내고 절도 안하니가 완전히 왕따였다. 나도 이 사회에서 대접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하니가 선생님들도 무시하고, 농사꾼이라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연구 참여자 6)

“안마사리는 게 꺼림직 하기도 했고 무시도 했지만 몸뚱이 하나로 사는 노가다나 안마사나 몸뚱이로 벌어먹는 건 똑 같은데 오십 보 백 보지...우린 공통점이 있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그래도 편하고 위로가 된다.”(연구 참여자 7)

“그 전에는 몰랐는데 OOO도 아버지가 누구인줄 모른다. 근데 나도 엄마 얼굴도 모른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니가 집을 나갔다는 소리만 들었다. 한쪽은 아버지를 모르고 나는 엄마를 모르고, 기가 막히면서도 슬픈 인연이다. 그 슬픈 인연이 우리를 묶어 놓은 것 같다.”(연구 참여자 8)

“나는 빨갱이 아들인데 한참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 사람 네 집은 장개석 계통이라 중국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서로 거꾸로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두 사람은 자기나라에서는 제대로 받을 붙이지 못할 팔자였다.”(연구 참여자 9)

위의 진술처럼 연구 참여자(1,2,4,6,7,8,9)들은 남성이라는 것, 한국이 배우자들의 출신국보다 경제가 좀 더 발전했다는 사실, 한국 사정에 좀 더 밝다는 것과 한국에 인적 자원이 있다는 것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무장해제를 하자 배우자와의 소통 통로가 열렸다. 소통이 개시되자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과 배우자는 상흔이 있는 소수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소수자로서의 연대의식이 형성된다. 연대 의식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1, 2, 4, 6, 7, 8, 9)은 자기의 문화를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솔직히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에게 쌀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미군들 밑에서 뽀스까이(심부름꾼)한 돈으로 고속도로 놓고 그러지 않았다.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은 착하다. 한국 사람들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사람 싫어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연구 참여자 1)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울면서 속 시원하게 말하니가 마음도 통한다. 남자가 뭐 별건가. 괜히 남자입네 하고 유세 떨면서 살라니까 힘든 거지. 마누라 통해서 배운 게 있는데 남자라고 유세떨면

일이 더 안 풀린다는 것이다.”(연구 참여자 2)

“단군의 자손이니 하는 거 단일민족이니, 백의민족이니 다 뺑이다. 미국 놈들 잡탕인데도 제일 잘 산다. 조직에 있을 때도 별 볼일 없는 놈들이 족보판다. 자신 있는 놈들은 절대로 족보 같은 건 우습게 여긴다.”(연구 참여자 4)

“여자하고 북어는 사흘거리로 두들겨야 되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라는 게 신념이었는데 못남 놈이 남자라는 이유하나로 이상하게 살아왔다.”(연구 참여자 6)

“노가다 판에서는 모든 게 속도전이다. 빨리빨리 오사마리(마무리) 지어야 돈이 되니까 사람들을 달달 볶는다. 노가다처럼 거칠고 힘든 일을 일곱 시 부터 시작해서 오후 여섯시까지 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위험이나 사고 같은 것은 신경도 안 쓴다.”(연구 참여자 7)

“필리핀 사람들 게으르다고 하는데 순박하고 착하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 헛된 욕심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부린다.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한국 사람들 다 필리핀 사람들 명의로 한다. 그래도 한 사람도 나중에 자기 것 이라고 안한다. 남의 나라에서 현지인이 소유권 주장하면 꼼짝없이 당한다. 한국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 같은 거 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연구 참여자 9)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는지 허파에 바람만 들어 거들먹거린다. 세계 경영이니, 세계 초일류니 하는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 외국 투기자본에 당해 꼼짝없이 IMF도 당했다.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은 게 아니라 세계는 넓으니까 겸손해야 된다.”(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들(1, 2, 4, 6, 7, 8, 9)은 위와 같이 그동안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고수해 온 문화와 신념체계에 의문을 던지고 이를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참여자들의 자기문화 해체 작업은 단독 행위가 아니다. 배우자들의 문화가 또 하나의 도전이 된다. 여성학과 문화인류학, 사회학 등의 학제에서는 저개발국가 여성들의 경제 선진국 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을 빈곤의 여성화와 이주의 여성화로 설명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이주에는 본인의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문화라는 신념, 가치 체계가 부착되어 있다. 그들은 또 다른 문화의 전파자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반입한 문화는 상대국의 문화와 긴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대국 남성들의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문화해체 작업에는 여성 배우자들의 문화간섭이 개재되어 있었다.

“베트남이 그토록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다. 중국도 이기고 미국도 프랑스도 이겼는데...그렇다면 우리는 뭐지. 돈 좀 벌었다고 뽐뽐대지만 중국 눈치보고, 미국 눈치보고, 양반은 무슨, 돈이라면 자존심이고 조상이고 팔아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연구 참여자 1)

“그래도 일본사람들한테 배울게 있다. 호들갑 떨지 않고 차분하고, 특히 남을 생각하는 행동거지가

좋다. 단체로 웃고 떠드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다.”(연구 참여자 6)

“몽고에서 온 잡부 하나가 일하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형제가 같이 왔었다. 사고수습하려고 부인이 몽고에서 왔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시동생하고 같이 사는 거야. 참 개 잡놈들 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누라하고 살다보니까 그 풍습이 이해가 된다.”(연구 참여자 7)

“중국 사람들을 때 놈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의심도 많고 속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한번 믿기 시작하면 배신하지 않는다. 마누라 덕에 근근이 먹고 사는데 한국 여자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이다.”(연구 참여자 9)

“필리핀은 이중플레이를 잘 안한다. 외국사람 밑에서도 고마워하며 일한다. 직장을 주었으니까 좋다고 한다. 한국사람 같으면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뒤에서는 매관자본이니 외국 놈들이 우리 돈 다 쓸어간다 어찌고저찌고 했을 것이다.”(연구 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1, 2, 4, 6, 8, 9)의 배우자들은 자신들 출신국의 의례(ritual) 풍습, 전통, 문화등을 이민 짐꾸러미속에 담아왔고 이 짐을 풀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의 초기적응은 스트레스나 문화충격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왜곡된 우월의식과 가부장적제도라는 억압기제로 주변인을 생산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가족환경 그리고 사회환경속에서 배우자들의 문화는 이질적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배제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례로 연구참여자 6의 배우자는 식모의 위치를 감수해야했고 소식을 하는 일본의 식문화는 섬나라의 쩌쩌함이나 소견좁음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1,2,4,6,7,8,9)이 그동안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당연시 했던 자기의 문화에 의심을 품기 시작 했을때 배우자들의 문화는 연구참여자들의 문화영토에 스며들 수 있는 틈새공간을 회복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전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의 문화를 해체했다. 해체는 자기문화에 대한 부인이나 파괴가 아니다.

해체는 재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의 문화를 재구성하는 노정에 진입하게되는데 이 장정은 배우자들의 문화와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들(1,2,4,6,7,8,9)의 가족주의 문화, 남성우월주의, 편협한 국수주의, 체면치레 문화 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문화에 대한 존중은 물론 지리학적 상상력(geographical imagination), 저맥락언어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문화를 재구성 한다.

“서로 말이 인통해서 이해가 안되는줄 알았는데 가만히 살다, 오래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말하고 우즈베키스탄 말하고는 다르게 있다는 거지 우리들은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통해, 나 배고파 하면 빨리 밥달라는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거야. 지금은 나 배고프니까 밥을 먹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훨씬 좋아.”(연구참여자2)

연구참여자2는 우리의 언어구조가 고맥락 언어임을 간파했다. 고맥락 언어구조는 한단어나 어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구체성이 없어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고맥락

언어는 생소한 사람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약점을 연구참여자는 발견하고 새로운 소통방법을 찾아 “목부 출신이라 무식하다.”(연구참여자2)는 편견을 제거하기도 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그런지 여자들의 권리가 높다. 집안일도 거의 동등하게 한다. 중국남자는 요리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는데 미누라도 나한테 집안일 하라고 했다(이하중략). 요리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재미를 느낀다. 음식만드는 것은 특권이다. 집에서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해야 대접받고 경쟁력도 생긴다. 우리 아들은 어찌보면 미래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다.”(연구참여자9)

연구참여자 9는 가족내에서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도 가사 분담이나 육아등을 회피하는 남성우월주의를 위와같이 새롭게 구성했다. 한편 연구참여자 7은 지리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몽골의 문화를 수용한다.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것은 초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것,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면 그렇게 못했을것이다. 부동산투기, 다 한군데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노가다가 나라걱정 하는게 우습지만 우리도 좁은 땅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정신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연구참여자7)

“특히 일본의 음식문화는 배워야 한다. 웰빙이니 음식물쓰레기니 하는데 조금씩 덜어 먹으니까 설거지 할것도 없다. 우리집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좋은점이 많다.”(연구참여자6)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많다. 구정을 쇠는것도 그렇고 쌀국수도 맛이 있다.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베트남의 실용적인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남 망하고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공장을 세우면 거기서 일을 한다. 미국간 사람들 우리로 치면 친일파다. 한국 같으면 큰일났을 것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 자존심 강하다. 미국도 쫓아냈으니까 자존심이라는게 이런 여유에서 온다고 생각된다.”(연구참여자1)

“중국에 있는 집사람 아들하고 조카들도 데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회에 민폐만 끼쳤는데 여유가 생기면 고아들도 돕고 싶다. 그놈의 핏줄, 핏줄하니까 웃기는 나라가 됐다. 뭐 OECD 국가라고 하면서 아직도 고아수출국 1위 아닌가. 내 핏줄만 핏줄인가. 단군의 자손은 다 같은 핏줄인데 이런 모순이 어디있는가.”(연구참여자4)

“사람들은 필리핀 여자들이 문란하고 돈만 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필리핀은 모계 사회 전통이 있다.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한다.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딸을 더 선호한다.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외국으로 돈도 벌러가는 거다. 우리나라도 독일에 간호사도 파견하고 그 돈으로 한때는 살지 않았다. 또, 70년 때에는 일본사람들이 기생관광하러 온 돈으로 살기도 했고, 미군들이 뿌린 달러로도 살았다.”(연구참여자8)

(5) 디아스포라적 자리찾기

연구참여자들(1, 2, 4, 6, 7, 8, 9)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안정적 결혼생활에 진입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상호이해나 배려를 넘어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진다. 문화의 재구성 작업을 수행한 후 연구참여자들(1, 2, 4, 6, 7, 8, 9)은 디아스포라의 위치로 자기를 기획투사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란 본래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유수를 당했을 때의 고통을 지칭하는 말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용어는 한 민족이 자기의 영토로부터 유리되어 강제적으로 집단이주를 당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Cohen, 1997)이지만 탈영토,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의 전파와 융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들 중 하나가 바로 이 흩어진 유대인(Diaspora) 때문이었다. 그들은 기독교 사상의 모태인 유대 문화를 이주지에 전파했다.

결혼이민여성들 역시 지구화판(板, version) 디아스포라였다. 그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했다 아니면 또다른 기회를 찾아 국경을 넘었든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문화는 새로운 이주지의 문화를 변형시킨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들 역시 자기의 문화를 재구성하여 디아스포라적 위치로 자리를 이동한다. 연구참여자들의 다음과 같은 구술요약을 통해 스스로 디아스포라적 위치를 찾은 그들의 선택과 결단을 독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공장에는 베트남 출신들이 많다. 월남전 때 나는 콩고물 하나 얻어먹은 것 없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잘해 주려고 한다. 그리고 베트남의 좋은 것들을 많이 이웃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준다.” (연구참여자 1)

“무식해서 정치는 잘 모르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아직도 소련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우리와 같은 동포가 많이 살고 그 사람들도 남의 땅에서 자리잡고 사는데 우리도 우즈베키스탄의 너그러운 걸 배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연구참여자 2)

“어디나 장사꾼은 다 똑같다. 일부만 보고 중국사람들을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신의와 관용을 배워야 한다. 조선족 중에도 공산당 간부가 많다. 조선족들 다 우리말 하고 산다.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런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9).

위의 참여자들 이외에도 연구참여자 4는 재중동포 노동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땅에서 보존되고 전승된 우리의 문화 의식을 체득하고 있고 연구참여자 6은 한·일 민간 친선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7은 부인으로부터 몽골어를 배워 어느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고 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몽고말을 골빠지게 배우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그저 말을 통해 서로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의 몽골어 학습의 이유이다. 연구참여자 8은 자신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필리핀 알기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부부는 물론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한다.

5. 함의 및 제언

1) 연구의 함의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의 연구참여자들(3, 5, 10)은 동업자 관계가 붕괴됨에 따라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았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1, 2, 4, 6, 7, 8, 9)은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오히려 성숙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성숙한 관계는 단순히 자기의 영역에 발붙일 공간을 조금 내어 주는 부분집합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가 명확하면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넓은 합집합이다.

그렇다면 국제결혼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혼인관계의 양상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들은 이를 '자기 문화의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디아스포라적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생애전략에서 찾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연령, 종교, 학력, 성장배경, 사회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결혼동기에 있어서는 도구적 성격이 강했고 동업자 관계로 전환한 뒤에도 교환가치의 불일치로 긴장과 갈등이 생성됐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생애전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한 부류의 연구참여자들(3, 5, 10)은 상대 배우자를 지배하겠다는 음모를 저류에 숨기고 위장된 관용이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억압적 행위를 했다. 이는 “똥개도 자기집 앞에서는 30점 먹고 들어간다” (연구참여자 3)는 구술이 여실히 증명한다.

이에 비해 또다른 부류의 연구참여자들은 “똑같이 천대 받은 것은 오십보 백보” (연구참여자 9)라는 구술처럼 여성배우자들과 자신들을 동일시 했다. 그리고 그간 아무런 성찰이나 비판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자기의 문화와 가치 등을 해체했다. 이 해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배우자 문화와의 접점에서 이루어졌다. 자기의 문화를 재구성한 연구참여자들은 디아스포라적 위치로 자기를 이동시킨다. 이 이동은 전체로서의 융합된 자기를 구성하려는 또다른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같은 자기성의 재구조는 연구참여자들이 진공상태에서 행한 단독행위가 아니다. 여기에는 디아스포라로 온 여성배우자들이 거울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은 함의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외국은 물론 국내의 연구자들 대다수는 결혼이민여성들, 특히 저개발국가 출신의 여성들의 경제 선진국 남성과의 결혼을 여성의 상품화, 이주의 여성화 등으로만 설명(Castle and Miller, 1998; Kofman, 1999; 이해경, 2005; 이선주·김영혜·최정숙, 2005) 하려고 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간 국제결혼이나 이주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암암리에 자행되어 온 물성적(gender blind)연구관행을 극복하고 은폐된 여성의 행위 주체성을 탈은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이주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압제의 빌미를 제공하는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지구화판(板: version), 신디아스포라(neo-diaspora)이다.

물론 결혼이민여성들이 모두 자기문화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인격전체가 경제적 목적으로만 성형(成形)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 역시 동일하다- 이종적 존재양식을 지니고 생활세계와 미래를 향해 터져 있는 존재이다. 여성들을 국제결혼으로 내몬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와 이민지에서의 억압적인 환경 못지않게 자기의 가능성을 발현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 많은 가능성들 중 연구자들이 채굴한 것은 '신디아스포라와 상대배우자들의 디아스포라적 위치로 이동하기'이다.

2) 제언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들을 통합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우리들에게로 강제편입시키려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부려왔다.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와 정체성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정책하에서는 또다른 주변부 문화를 양산할 뿐이다. 관용이 국시(國是)로까지 인정받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모슬렘들의 폭동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의 동화주의 모델은 실패했다.

연구자들은 통합이 아닌 원융(元融)의 관점을 제안한다. 통합이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용광로에서 모든 것을 녹이는 것이라면 원융은 자기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융화되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의 어법을 빌려 표현하면 '조화를 이루되 같지는 않은 것(和而不同)'이다. 원융의 관점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문화간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을 제안한다.

문화간 교육이란 자민족중심적(ethnocentric)사고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문화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과 문화간 유능성(intercultural competence)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학교교육에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우리의 문화정체성과 자부심을 배양하면서도 타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를 배양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국제결혼 가정 부부의 상호이해증진과 결혼만족도 제고를 위한 문화간 교육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대문화 이해교육이 혼인에 앞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업적 목적을 지닌 국제결혼회사에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단체와 정부나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는 단체들에게는 적용이 용이할 것이다.

둘째, 부부가 함께 하는 상호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이다. 현재 결혼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지적 서비스는 대부분 결혼이민여성들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이해와 존중은 부부당사자들중 어느 일방만을 대상으로 하여 달성할 수 없다. 남성배우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성공적인 국제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많은 국제결혼 가정에 역할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조모임과 같은 정서적 공동체를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모국 공동체는 심리적 안정의 닻(anchor)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까지만 개입하여 이를 형성케 지원하고 추후에는 공동체 성원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경향신문 2007. 4. 15일자 "신혼부부 8쌍 중 1쌍 국제결혼".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상임.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 인권센터 기념 심포지엄 학술대회 자료집』.
- 김연수. 2007. " 남편의 아내모국문화 이해노력과 심리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59-280.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실. 2004.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 이주여성, 국민국가, 그리고 시민권 최협외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김은중. 2005. "세계화, 정체성, 다문화주의". 『라틴아메리카연구』 18: 137-179
- 김이선·김민정.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미. 2004. "친밀성의 전지구적 상업화: 한국의 이주여성엔터테이너의 경험". 『여성이론』. 가을호: 68-102.
- 설동훈·윤홍식.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247-265
- 신란희. 2005. "국제결혼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선화. 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 결혼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집.
- 윤영주. 2001.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형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이금연. 2003. "국내국제결혼과 그 이해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 복지관 이주여성쉼터.
- 이선주·김영혜·최정숙. 2005. 『세계화와 아시아에서의 여성이주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299-339.

- 이혜경. 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자료집, 아시아 이주 여성국제포럼준비위원회.
- 장온정. 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금해. 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44.
- 통계청. 2008. 국제결혼통계(<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국염. 2006.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국제결혼을 통한 전북지역 이주여성의 올바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전북여성단체연합, 3-17
- Abraham, M. 2000. "Speaking the Unspeakable: Marital Violence among South As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Ataca, B., and W. J. Berry. 2002. "Psychological, socio 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Baltas, Z., and A. Steptoe. 2000. "Migration, cultur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urkish-British Married Couples". *Ethnicity and Health* : 5(2), 173-180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68.
- Berry, J. W., U. Kim., S. Power., M. Young., and M. Bujaki.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8: 185-206.
- Bhugra, D. 2004.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109: 243-258.
- Castle, S., and M. J. Miller. 199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 Cohen, R. 1997.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Del Rio, M. 1998. "The role of connection to the naive culture in intercultural marriages: Perceptions of Puetorican wom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Fincham, D. F. 2003. "Marital Conflict: Correlates, Structures, and Context".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12(1): 23-27.
- Esau, R. L. 2007. "Tongan Immigrants in Japan".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6(2): 289-300.
- Killian, K. D. 2001. "Reconstituting Racial Histories and Identities: The Narrative of Interracial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7: 27-42.
- Kofman, E. 1999. "Female 'Birds of Pasage' a Decade Later: Gender and immi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2): 269-299.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3. *World Migration Report 2003*. Geneva : IOM.
- Leung, H. H. 2007. "The Road less Taken: The Settlement of chinese Immigrants in Sonall Towns".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6(3): 101-120.
- Liber, E., D. Chin, K. Nihira., and I. T. Mink. 2001. "Holding on and Letting Go: Identity and Acculturation among chines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7: 247-261.

- Lieblich, A., R. Tuval-Mashiach, and T. Zilber. 1998.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diguid, T. W. 2005.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들(한국).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 포럼』.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자료집.
- Menjívar, G., and O. Salcido. 2002. "Immigran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mon Experiences in Different Countries". *Gender & Society* 16(6): 898-920.
- Ogaya, C. 2004. "Filipino Domestic Workers and the Creation of New Subjectivity".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3(3): 381-405
- Patterson, F. M. 2004.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from the Lives of Aging International Migrant Women". *International Social Work* 47(1): 25-47.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499-514.
- Piper, N., and M. Roces. 2003. *Introduction: Marriage an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in N. Piper and M Roces (Eds). *Wife of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22.
- Proulx, M . C., H. Helms., and C. C. Payne. 2004. "Wives' Domain-specific Marriage work with Friends and Spouses: Links to Marital Quality". *Family Relations* 53: 393-404.
- Roccas, S., G. Horenczyk., and S. Schwartz. 2000. "Acculturation Discrepancies and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Conform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323-334.
- Schwandt, T. A. 2001. *Dictionary of Qualitative Inquiry*(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mith, A., and G. Kaminskas, 1992. "Female Filipino migration to Australia: An overview". *Asian Migrant*, 5(3): 72-81.
- Szuki, N. 2004. "Inside the Home: Power and Negotiation in Filipina -Japanese Marriage". *Women's Studies* 33: 481-506.
- Tummala-Narra, P. 2004. "Mothering in Foreign Land".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64(2): 167-182.
- Ward, C., and A. Rana-Deuba. 1999.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422-442.
- Woelz-Stirling, N., L. Manderson., M. Kelaher, N., and S. Gordon. 2000. "Marital conflict and finances among Filipina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791-805

A Study on the Biography of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 A Story of Neo-diaspora of Seven Men -

Lee, Keun Moo
(Sung Kyun Kwan University)

Kim Jin Sook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Korean men that chose international marriage in terms of motivations,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s in terms of content and process, and quality changes by approaching them in a biography research method, as well as to look into the world of their specific experiences.

Ten Korean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participated in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generated plenty of data. The analysis results of the data indicate that the instrumental nature was strong as for their motivation to marry a woman of a different nationality. They maintained partner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s until the exchange values became equal between them, when tension and conflicts started to happen. The ways they reacted to the crisis determined whether their marital relationships would continue or end. Most of the subjects that succeeded in maintaining their marital relationships deconstructed their own culture, reorganized it at the contact points with the culture of their spouses, and then moved to a new diaspora.

The research implications emphasize an academic need to regard female marriage immigrants as a neo-diaspora in the global age. And suggestions were made as to intercultural education.

Key words: 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biography research, neo-diaspora, inter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논문 접수일 : 2008년 11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월 12일]